

〈선발 대학원의 운영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의 특징과 향후 계획

엄 영 석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국제지역대학원장



1. 서 언

WTO 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국제화·개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는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문호는 개방하지 않은 채 폐쇄된 사고에 안주하여 왔었다. 우리의 귀중한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는 것과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개방화가 진전되더라도 우리는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지닐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개방화가 됨으로써 외국인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비교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주면서 세계적 가치관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화·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에서는 세계화 추진 전략의 하나로서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였으며, 9개 대학을 국제인력 양성을 위한 국책대학으로 선정하였다. 9개 국책대학들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9개 국책대학 이외에도 많은 대학들

이 국제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을 설치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경쟁과 협조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고등교육의 앞날이 밝다고 하겠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5개 중점지원 국책대학 중 하나로 선정되어 금년 초에 국제지역대학원을 신설하여 국제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본교는 오래전부터 대학원에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지역학과를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지역학을 전담하기로 하였다.

본교는 설립이념이 국제인력 양성에 있었으며, 지금까지 많은 지역전문가를 배출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특히 영어, 불어, 독일어 등 선진국가들의 언어와 문화 연구, 아울러 특수지역인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중국 등의 나라에 대한 지역전문가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화 인력양성 정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본교의 오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에서 진심으로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며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설된 국제지역대학원의 활성화는 대학교육 전반에 걸쳐 면학 분위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취업준비 기관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었고 대학원의 위치가 점차 위축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국제지역대학원을 활성화하는 것은 국제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원의 활성화를 자극하여 대학 전반에 걸쳐 학구적인 연구 분위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

겠다.

우리나라의 대학원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게 되었다. 국내 대학원을 수료했어도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내 대학원을 기피하고 외국의 대학원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한국 대학교육의 파행성이 심화되어 왔으며, 유학생들은 막대한 외화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뜻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가지 않고서도 훌륭한 국제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본 대학원에서는 교육부의 취지에 따라 전 과목을 외국어로 강의하면서 지역학 연구를 한국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제 한국 대학에도 많은 외국인 교수들이 와 있으며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 없이 외국에 나가서 지역사정에 적응하지 못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어려움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선정된 9개 국책대학원들은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리고 있는 바, 본교에서는 지역전문가 양성의 특화를 목적으로 하여 대학원의 이름도 국제지역대학원으로 하였다. 본 대학원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국제지역대학원의 현황

1) 지역학과와 학생 구성

본 대학원은 현재 9개 지역학과에 57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금년 초에 대학원이

설립되었으므로 처음부터 많은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였으나, '98년도에는 석사과정 학생정원을 120명으로 증원하고 박사과정 학생정원을 24명 확보하여 본격적인 지역학 전문대학원으로서 내실과 규모를 갖추려고 한다. 현재 본 대학원의 9개 지역학과와 학과별 학생수는 <표 1>과 같다.

9개 지역은 실질적으로 세계 모든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몇 개의 지역에 한정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으나, 한국외국어대학 본래의 교육이념에 따라 특수지역에 대한 지역전문가 양성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광범위한 지역학과를 개설하였다.

지역학과 중 한국학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외국을 알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남의 나라 언어와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배우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나라의 말과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현재 한국학을 외국의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데, 한국학과 교수진은 외국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OECD의 일원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을 배우겠다는 외국인의 수가 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국학과를

<표 1> 학과, 재학생수 및 학위종별

학 과	재학생수	학 위
한국학과	5	지역학 석사
중국학과	4	"
일본학과	7	"
동남·남아시아학과	4	"
중동·아프리카학과	2	"
러시아·동유럽학과	4	"
유럽연합학과	10	"
북미학과	17	"
중남미학과	4	"

개설하였고, 이는 외국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본 대학원 한국학과에는 미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 온 학생들이 있다. 앞으로는 한국학과외의 외국인 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 교과목

교과목은 9개 학과 학생이 모두 공통으로 수강하는 과목과 지역학과별로 수강하는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다(<표 2> 참조).

9개 지역학과마다 전공분야를 크게 정치·경제·사회/문화로 나누고 있다. 1학기에는 지역학에 대한 총론, 방법론과 언어에 중점을 두며 학부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기초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2학기에는 지역별 교육과정을 시작하면서 전공분야에 대한 일반지식을 얻는 데 중점이 놓여진다. 3, 4학기에는 특정 지역학에 전념하게 되고, 특히 4학기에는 개별연구에 치중하게 된다.

3. 국제지역대학원의 특징

1) 지역학 연구

본 대학원은 지역학을 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지적하였다. 국제대학원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바, 예컨대 통상, 국제관계, 국제경영 등에 중점을 둔 학교도 있으나, 본 대학원에서는 일반적인 통상전문가보다는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오랫동안 본교가 추구해온 교육이념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본교는 일반대학원에 각 지역학과를 개설

(표 2)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과별 교육과정

학 기	분야		정 치	경 제	사회·문화	학점·시간
	구분					
1	공통필수		지역학총론(정치, 외교, 법, 경제, 통상, 사회, 문화) 연구방법론			6학점
	어학 선수		지역언어 및 공용영어(제 2 외국어)			2시간 (S/U)
	분야 연수		정치와 경제, 법과 경제, 사회와 문화(각 2시간)			6시간 (S/U)
여름 지역연수			지역언어(해외 및 국내 연수)			8주 (128시간)
2	분야 공통필수		정치학총론	경제학총론	사회·문화총론	전공 6학점
	지역 공통필수 (해당지역 및 국가)		지역정치론	지역경제론	지역문화론	타전공 선택과목 3학점
			국제관계론	지역경제법	지역사회구조론	
선 택 과 목		지역언어, 국제협상론, 국제법			각 3시간 3학점	
겨울 지역연수			지역언어			4주 (64시간)
3·4	선택과목 (각 지역, 각 분야)		(해당지역 및 국가) -정치체도론 -선거와 정당론 -정책결정과정론 -외교사 -정치문화론 -정치엘리트 연구 -이익집단 정치론 -외교정책론 -의회정치론 -정치·행정 관계법 -지역통합법 -정치구조 및 기구론	(해당지역 및 국가) -경제정책론 -무역론 -산업경제론 -기업론 -지역 및 공간경제학 -투자환경론 -소비자 기호론 -경제통합론 -금융기구 및 시장론 -노동시장론 -공공재정론 : 조세제도 연구 -상거래법	(해당지역 및 국가) -사회정책론 -사회구조 및 변동론 -문화·교육 정책 -생활문화와 관습 -종교와 민속 -사회와 언론 -소수민족 연구 -사회·문화와 법 -지역역사와 지리	전공 12학점 타전공 3학점
4	개별연구		-정치연구 세미나	-경제연구 세미나	-사회·문화 세미나	논문지도 3학점

하여 지역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을 교육시켜 왔으나, 이러한 노력은 소규모의 학생수, 위축된 교육과정, 불리한 교육 시설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지역학 연구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기획하여 왔던 지역대학원 설립이 가능했던 것이다.

2) 외국어의 사용

본 대학원에서는 모든 과목이 외국어로 강의된다. 공통과목은 영어로, 지역과목은 지역언어로 강의된다.

교육부의 국책대학 추진 기본 의도가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을 외국에 보내지 않고도 국내에서 외국 대학에서 배우는 것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대학원은 외국어로 강의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지금까지 실시하여 오면서 예상 이외의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어를 기피하는 습관이 있다. 대화중에도 외국어를 쓰면 무엇이 잘못된 것처럼 송구스러워 하는 것을 종종 본다. 외국어를 잘하여 대화중 외국어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국제화는 이러한 습성을 깨는 것이다. 학교교육에서도 외국어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외국어로 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될 때, 우리나라의 교육도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게 되는 것이다. 태국의 타마스르 대학은 오래 전부터 영어로 대학 강의를 해왔고 한국 학생들도 그 곳으로 유학을 하였다. 우리도 이제는 외국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겠다. 일본에서는 외국 학생

들을 상대로 외국어로 강의하는 대학들이 설립되고 있다.

본교는 많은 지역별 어문계열 교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철저히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외국인 교수와 외국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고 있어서 외국어의 사용이 습관화되고 있다.

3) 종합적 접근

본 대학원은 일반적인 통상전문가보다는 특정지역의 사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지역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습성을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경제 이외의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것은 경제협력의 실패를 자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경영전략으로서 기업을 가정과 같이 상정하여 사원들의 충성심을 끌어내려고 하나, 이러한 가부장적 기업경영 철학은 개인주의 사상에 투철한 서구 사회에서는 맞지 않으며, 그들은 이러한 기업철학을 그들이 오랜 기간을 두고 싸워서 쟁취한 민주적 기업경영 방식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게 된다.

한국 기업이 서구 사회에서 기업을 인수할 때 걸림돌의 하나가 한국 기업의 경영철학이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 2학기에는 종합적 접근에 의하여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흡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3학기부터 특정분야를 전공하는 제도를 시도하고 있다.

4) 학부와의 밀접한 관계

9개 지역학과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의할 많은 수의 교수진이 필요하다. 본 대학에서는 9개 지역학과 주임을 학부의 지역전문 교수로 임명하며, 학부 교수가 대학원 과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물론 본 대학원 전임교수도 현재 12명이 있으며, 앞으로 1년 내에 23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의도는 본교의 학부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하는 지역에 대한 언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대학원은 고립된 대학원이 아니고, 학부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대학원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또한 외대의 특성을 살려 영어과 이외의 학생들도 영어는 어느 수준까지 하고, 지역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5) 연수 프로그램

본 대학원은 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해외에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대학원에 재학하는 2년 동안 어느 때에 해외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익할 것인가 신중히 검토한 결과, 1학기말 여름 방학기간을 택하게 되었다. 지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언어 구사능력이 어느 수준에 달하면 전공하는 지역에 직접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지역의 문화와 제도를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지 방문은 빠를수록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학생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일반적으

로 본교와 자매관계에 있는 대학을 선호하였으며, 대학에서의 연수와 아울러 현지의 정부기관, 입법부, 사법부 등의 기관을 방문하여 그 곳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물론 역사적 유적이거나 문화적으로 이름난 명승지를 방문하는 것도 포함시켰다.

여름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현지연수 담당 기관으로부터 학생들의 연수 성적을 평가하여 보내도록 하고, 학생들은 귀국 후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출한 보고서 중에 지역별로 하나씩 선택하여 연수 보고회를 공개적으로 가졌다. 연수 보고는 현지어로 하고, 영어가 아닌 때에는 동료학생이 한국어로 통역한다. 연수 보고를 지역언어로 들으면서 학생들이 지역전문가로서의 틀을 잡아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6) 지역연구와 '외국학 종합센터'

본교가 지역학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대학원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지역학에 대한 연구와 정보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학 종합센터'를 설립하였다. 국제지역대학원과 외국학 종합센터는 지역학 연구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지역학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연구지 발간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학 종합센터에서는 현재 3명의 책임연구원, 6명의 연구원, 11명의 연구조원, 그리고 31명의 해외 리포터를 확보하고 있다. 외국학 종합센터에서는 이미 각 지역의 최근 정보를 수집 정리한 『국제지역정보』지를 격주간으로 발간·배부하고

있다. 또한 순수 학술 논문을 게재하는 『국제지역연구』를 격월간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국제지역 연구 저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라는 영문 지역학 연구지를 발간하려고 준비중이다.

외대에는 이미 11개의 지역연구소가 있다. 이들 연구소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하여 왔으나 아직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기존 연구소들을 외국학 종합센터 산하에 속하도록 하여 종합센터의 연구활동과 연계시키고 있다. 외국학 종합센터는 연구의 기능 이외에 연수 기능을 갖고 있다. 현재 용인 캠퍼스에는 외국인 종합센터가 건축중이며, 연수 기능의 확대는 산학협동 사업으로 전개되어 외대의 재정 수입원으로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대학원 학생 중 현재 23명의 학생들이 연구조교로서 외국학 종합센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국제지역대학원의 전임교수들도 연구지 발간 위원으로 외국학 종합센터와 상호 협조를 하고 있다.

4.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새로운 개념으로 시작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그 실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어려움은 본 대학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과 새로운 프로그램이므로 시행착오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있다.

학생선발 과정, 교육과정 편성, 교수 총원, 학생연수 계획, 일반 대학과의 관계 등

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나, 논의와 협조 과정을 통하여 해소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 나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본 대학원이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이 많다.

우선, 현재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본 대학원에서는 정부 보조에 대응하는 자체기금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학생들의 취업문제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본교에서는 국제지역대학원과 외국학 종합센터를 두 축으로 하여 대학원은 교육, 외국학 종합센터는 연구와 연수에 중점을 두고 지역학 연구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육과 연구, 연수는 지역학 연구에서 분리할 수 없는 양면이라고 할 것이다. 학생들을 대학원이란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새롭게 지역학 연구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이를 수용하는 제도도 필요하게 된다. 국제화·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여 주위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이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수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대학원 정규과정에도 적을 들 수 있고 또한 적당한 기간의 연수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학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서 직장인을 받는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학 종합센터의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한다.

본교는 지역학 연구의 계획과 집행을 위

국학 종합센터가 총괄하게 함으로써 교수들은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 사정을 알리는 정보 제공의 역할은 물론 순수한 지역학 이론을 장려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본 대학원은 앞으로 학사행정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노력의 결과를 차등화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본 대학원에 들어오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모든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할 것이다.

교육도 하나의 경쟁의 장이다. 따라서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노력하지 않고 대가가 주어진다는 생각은 진정한 교육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인력 양

성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은 보다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

엄영석/서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의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국제지역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상경대 학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원장,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경제는 발전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 『기업지배구조와 한국자본주의』 등이 있으며, 『한국경제학 서설』로 매일경제신문사 주관 언론문화상 경제경영도서부문 대상을 받았다.